

사후 150년만에 소개되는 포의 걸작단편

전 58편의 포 단편 수록한 <에드거 앨런 포 단편전집>

에드거 앨런 포는 여전히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미국작가로 유명하다. 불행을 잇기 위해 글을 썼지만, 죽는 날까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 상징주의 · 추리소설 · 과학소설의 창시자였던 19세기인. <포 단편전집>은 이 불행했던 작가의 알려지지 않은 삶의 이면을 진솔하게 보여준다.

결코 포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아르헨티나의 소설가 보르헤스는 1978년 벨그라노 대학 강연에서 불행했던 천재문인 포의 작품을 가리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전혀 상관없이 보이지만 겹보기와는 달리 밀접하게 관계있는 두 가지 것이 그로부터 나왔다. 바로 지적 행위로 쓴 문학과 탐정소설이다.”

문학을 지적 행위로 본 포

포는 문학행위를 영혼의 작용이 아니라 지적 행위의 결과로 본 최초의 작가였다. 그가 인류에게 최초로 선사한 탐정소설 · 과학소설 · 판타지소설 등은 이 지적 행위에 따른 문학의 부산물일 뿐이다. 하지만 이 부산물이 없었더라면 20세기 문학이 굉장히 허전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20세기 문학의 원천을 향한 시선이 곧잘 포에게 이르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이번에 ‘황금연못’이 펴낸 전4권짜리 <에드거 앨런 포 단편전집>은 포의 문학세계의 근간이 되는 단편 58편을 모두 수록했다. 이 전집은 다시 판타지 성향의 작품들을 모은 <환상 여행>(16편), 풍자적인 작품들을 모은 <광인 치료법>(15편), 미스터리가 중심인 작품들을 모은 <뒤팡의 미소>(13편), 공포 분위기의 작품들을 모은 <검은 고양이>(14편) 등으로 나뉜다.

미스터리와 공포 성향의 몇몇 작품들을 제외하곤 대부분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작품이라고

간 단편적으로 알려졌던 포의 산문세계를 총체적으로 접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아무런 관심 없이 지나갔지만, 지난 1999년 10월 7일은 고통의 삶을 살았던 포가 불티모어의 한 주점에서 과음으로 사망한 지 150주년이 되는 날이라 포의 단편을 읽는 마음은 더 각별하다.

이 전집에는 탐정소설의 효시가 된 <모르그가의 살인>, 궁핍한 생활을 해가던 포에게 1백달러라는 거금을 선사했던 <황금벨레>, 젊은 보들레르가 매료돼 직접 불어로 번역했던 <검은 고양이>, 포 자신이 최고의 작품으로 꼽은 <리케이아>,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빈번히 인용한 <도둑맞은 편지> 등 포의 대표적인 단편이 수록됐다. 또 몽환적인 상상력이 돋보이는 <엘레오노라> <요정의 섬> 등과 출판사와 잡지사를 전전한 포의 불운이 속속들이 뻔 풍자소설 <싱검 밥 귀하의 문학 인생> 등의 단편도 만날 수 있다.

포의 단편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또다른 즐거움은 작가의 창작방법론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타원형 초상화>의 주인공은 큰 상처를 입게 되자 위협을 무릅쓰고 아무도 살지 않는 한 성에 들어가 하룻밤을 지새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막 여인으로 성숙해가는 한 소녀의 초상화를 본다. 마치 살아 숨쉬는 듯 생생한 그림이라 오싷한 느낌마저 들 지경이다. 주인공은 이



홍성영 옮김/하늘연못/A5신/300면 내외/각 7500원

그림의 내력을 찾아 읽는다. 그림이 그토록 생생한 것은 모델인 아내의 죽음도 모를 만큼 그림에 빠져든 화가의 열정 때문이었던 것이다.

포의 문학적 드러난 단편

이는 곧 <작문의 철학>에서 포가 밝힌 바, 소설은 속세의 관찰과 인간의 심정을, 즉 공포 · 우울 · 비애와 같은 감정을 산출하는 현실적 생활 사실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예술의 지상적 요소인 그 감정 자체를 작가가 인공적으로 예정한 예술적 효과를 중심으로 묘사해야 한다는 주장과 흡사하다. 즉, 포에게 이야기는 현실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최대한 집중력을 살려 정교하게 고안해낸 언어체계인 것이다.

같은 강연에서 보르헤스는 반 비크 브루크스의 <뉴 잉글랜드의 개화>를 소개하며 19세기 초엽 미국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에밀리 디킨슨 · 허만 멜빌 · 헨리 소로우 · 랄프 에머슨 · 헨리 제임스 등 문학천재들이 일시에 태어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변방의 미국문학을 세계문학으로 끌어올렸다. 포 역시 그 중의 한 사람이다. 포의 단편전집이 사후 150년이 지나서야 번역됐다는 사실이 특기할 만한 까닭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포의 중요한 작업인 시편들이 함께 묶이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김연수 기자

서광사, 어린이 철학동화 시리즈 〈세상의 빛깔들〉 펴내

서광사/A5신/112면 내외/각 5000원



철학서적을 전문적으로 발간해온 서광사가 초등 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철학동화 시리즈 〈세상의 빛깔들〉을 펴냈다. 이 시리즈는 이탈리아의 치타노바 출판사가 출간한 같은 제목의 시리즈를 번역한 것으로 1차분 8종을 우선 출간했다.

시리즈 1권인 《별나라 서커스단》(루카 콰르타나 지음, 김홍래 옮김)은 은퇴한 어릿광대 피에로 할아버지를 통해 노인문제를 다룬 동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어릿광대가 갑자기 서커스단을 그만두자, 피에로 할아버지는 직접 공연에 나서지만 실수를 연발한다. 그런데 오히려 관중이 할아버지의 실수를 더 즐거워하게 되면서 서커스단은 흥행에 성공을 거둔다.

《검은 성벽을 넘지 말아라》(코린 마레스트 ·

크리스틴 마레스트 지음, 안진원 옮김)는 어린이 마약문제를 다룬 동화로, 외로움 때문에 마술가루약을 먹은 어린 고양이 사도가 역경을 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다. 또한 《요정이 된 마녀 우파바루파》(안나마리아 가티 지음, 안진원 옮김)는 '왕따'를 당하던 착한 마녀 우파바루파가 어린이들을 친구로 사귀면서 '왕따' 문제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포마 천사 톱과 디의 천지창조 구경하기》(에지디오 산탄케 지음, 안진원 옮김)는 하느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과정을, 《한스와 아이들》(아드리아나 페드론 폴비렌티 지음, 김홍래 옮김)은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각각 그렸다.

이밖에 《날개 달린 얼룩소》(미켈레 제니시오

지음, 김홍래 옮김)는 심술궂은 자크 노인이 마을 어린이들이 보낸 케이크와 떠돌이 소년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야기를, 《허수아비 기드온》(그라치아 파사 지음, 안진원 옮김)은 허수아비와 새들의 우정을 각각 다뤘다.

노인 문제, 전쟁 문제, 어린이 마약 문제, 왕따 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 〈세상의 빛깔들〉 시리즈는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의 폭을 넓혀 줄 수 있을 듯하다. - 김정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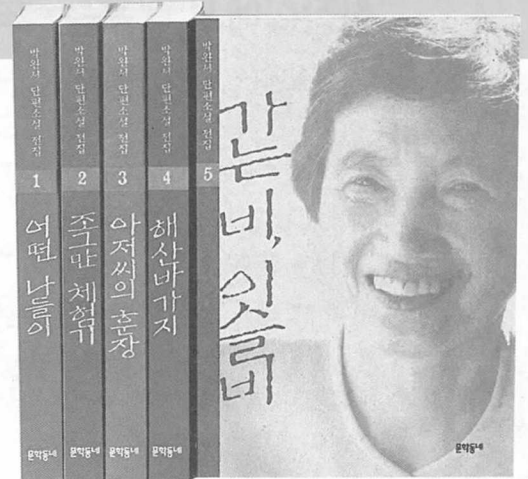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나와

문학동네가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전5권)〉을 펴냈다. 이 전집에는 박완서 씨가 1971년 발표한 〈세모〉부터 1994년 발표한 〈가는 비, 이슬비〉까지 모두 75편의 단편이 연대순으로 실렸다.

이번 전집은 우리 근현대사를 충실히 증언해온 박완서씨의 문학여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그 출간 의미가 있다. 박완서씨는 전집 서문에서 “완성도가 떨어져 있고 싶은 글까지 포함시켰다”며, 자신의 “문학적 궤적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드러내 보이고 싶었다”고 밝혔다.

전집 각 권에 실린 류보선 · 하응백 · 서영채 · 신수정 · 정호웅 등 비평가들의 평론은 박완서 문학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해준다. 류보선은 박완서 문학을 “근대 이후 우리 문학사가 무시했던 우리 사회의 특수성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서영채는 “일상적 삶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표현해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 하응백과 정호웅은 각각 박완서의 문학에는 ‘비관정신과 모성적 사랑’ 그리고 ‘복원 정신’이 있다고 논했으며, 신수정은 ‘박완서의 소설적 여정과 작가 주체의 정립과정의 관계’를 분석했다.

문학동네/A5신
390면 내외/각 8500원



불혹의 나이에 등단해 작가 생활 30년을 맞이하는 박완서씨는 ‘분단’ ‘중산층’ ‘여성문제’를 주제로 다뤘으며, 1980년 한국문학작가상부터 1999년 만해문학상까지 여러 문학상을 받았다. 그는 최근 계간지 《실천문학》에 장편소설 《아주 오래된 농담》을 연재하는 등 아직도 왕성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 김정은 기자